

2018 민관합동 도시농업 정책워크숍 종합토론 (질의응답)

부영텃밭친구들 김영규

도시농업이 개인화되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현재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이 심각한데 부영텃밭처럼 도시농업공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인천매립지도 도시농업 공원화되길 바란다.

도림동 텃밭 김무영

도시농업 관리사 제도에 대해 궁금하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김진선

정책이 제대로 현실화 되려면 민관협력이 필요한데 공무원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1.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전 목표와 취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2. 한태오 과장님 도시농업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현재 각 구에서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행사를 실현하려 해도 농업기술센터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농업팀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인천시 도시농업팀 김정희 팀장

각 구청 공무원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도시농업팀장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의견은 전달 될 것이다.

- 1) 앞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연구회에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농업 실태조사와 공간 활용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 2) 원래부터 도시농업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해오던 일이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각 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시농업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신규팀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변옥균

인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전한 땅이 있는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인천연구원 최태림

인천이 도시농업 쪽으로 네트워크는 잘 되어 있으나 여러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의 토양이나 수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알게 된 도시농업의 사회적인 측면을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덕 대표

도시농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도시농업과 관련된 국가기능사 자격증 9개 중에서 한 가지를 취득해야 한다.

김인호 교수

2015년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에서 경작이 가능. 도시공원은 공공정원에 약자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텃밭의 사적인 면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텃밭이 심미성, 공공성을 가진다면 괜찮을 것 같다. 미군기지의 경우에는 오염된 땅이 정화된 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진덕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단지 도시농업만 강조한다면 불가능해 보인다. 문화, 농업, 정원이 적절하게 조화된 공간이 되어 한다.

나래미협동조합 이유리

전문인력들의 배출은 많은데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신지?

김진덕

대부분 텃밭교육 강사. 학교텃밭, 유치원 어린이집. 법적으로는 공공일자리 지원이 있으나 실제 시행은 미비. 민간차원에서 노력도 필요하다. 마을과 구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분야와 연결하여 폭넓게 진행해야 한다.

송창식

도시재생차원에서 시흥시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 은퇴 후 개인의 노하우와 재능을 살려 “다다”라는 사회적기업. 마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쓰레기 문제 해결, 공구 대여 등을 한다. 앞으로 도시농업 참여 인구가 늘어난다면 도시농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필요할 것이므로 도시농업관리사가 그 역할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마스터가드너 인천지회장 윤성남

노원구에 천수텃밭의 경우 음악회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인천에서도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한다.

김진덕

천수텃밭은 농장주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변의 산을 이용하여 빗물저장 시설을 만들고, 버섯과 산약초 등을 다채롭게 하고 있다. 그 안에 공공성이 있기에 자연스레 노원구청과 함께 하게 됐다.

인천 청년 성현영

인천토종씨앗보급소 활동 중, 기존의 육묘산업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김진덕

도농상생의 문제는... 농산물 직거래는 단지 사먹는 것으로 끝난다. 도시형 농부시장과 같이 농민들과 도시농부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토종종자의 경우에도 씨앗이 중심이 아니라 토종을 지켜온 사람들과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기에 그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텃밭강사 김경숙

네덜란드의 도시농업 공동체, 안산에서는 지역재생과 함께 도시농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다.

송창식

-네덜란드의 경우 케어팜. 안산시 3년동안 실행. 독거노인은 1100을 먼저 발굴. 의료 복지 건강을 포함. 먹거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먹거리 쪽이나 유희 부지를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 생산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아까 종합계획의 경우 연구조사가 정량적인 정보는 제공해주나 실제 도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생각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도시농업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시민참여 위원회, 도시농업단체 등과 함께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팜플레이협동조합 윤기옥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어려운 것이 토지 확보문제이다. 농지를 임대 해주고 싶어도 세금문제로 인해 놀리는 경우가 많다. 도시농업단체나 도시농업인을 법적으로 등록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농지임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진덕

농지법과 관련된 문제라 시민단체와 정부부처와 함께 해결해야 할 것 같다.

김인호

국가에도 각각의 정부부처가 있고 지방정부에는 부서들이 있다. 때때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농업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공간들이 마을단위로 많이 생기길 바란다.

송창식

실제적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도시농업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차원에서 도시농업의 큰 그림을 그리길 바란다.

농축산유통과 한태호 과장

도시농업팀이 일원화 통일화를 통해 도시농업 관련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